



작곡가들 모임 ‘광주작곡마당’ 창단

9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서 창단음악회 ‘5개의 시선’

‘새로운 음악문화를 꿈꾸는 작곡가들의 모임’이라는 모토로 출범한 ‘작곡마당’은 지난 2001년 서울 작곡마당(대표 신동일)을 시작으로 2006년 부산 작곡마당(대표 백현주)에 이어 올해 광주 작곡마당(대표 이승규)이 창단됐다. 광주작곡마당은 오는 9일 오후 6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제1회 창단음악회를 가질 예정이다. ‘5개의 시선’을 주제로 열리는 창단음악회는 서울, 부산 작곡마당 대표의 축하공연과 더불어 광주 작곡마당 회원 5명의 무대로 채워질 예정이다.

음악회는 광주 작곡마당 대표의 사회와 작곡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창작곡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게 기획됐다. 신동일 피아노 모음곡 ‘즐거운 세상’을 비롯해 백현주 가곡 첫사랑의 강, 류시화 시, 이승규 피아노를 위한 자음상(自音像), 김민정 가곡 산유화, 김소월 시, 이선영 가곡 먼훗날, 김소월 시, 심효정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Pit a pat’ 등을 발표한다. 이승규 대표는 “작곡마당은 전공과 무관하게 작곡의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과 함께하고 있다”며 “문화와 예술, 음악 전반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문화 예술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려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작곡마당은 각 지역마다 매년 1~2회의 작곡발표회와 음반 발매, 작곡포럼 등을 열고 있다. 전공, 장르를 초월해 자유로운 음악적 실험을 통해 한국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청중들과 소통·교감의 장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 창작음악의 저변확대와 보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악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8세 이상 관람가. /이연수 기자

광주여성재단,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 양성

지역 최초 전문가육성...오는 11일까지 접수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엄미봉)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오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추진할 전문가들을 배출하는 교육 사업이다. 배출된 컨설턴트들은 광주시 일·가정양립

지원본부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가족친화문화 조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 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지원 등 가족친화경영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과 직장교육 등에 투입될 방침이다. 재단은 오는 28일 우석대 이승미 교수의 가족친화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시작으로,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 가족친화인증제 소개, 광주시의 일·생활 균형 정책 및 광주 소재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현황, 컨설팅 사례 발표 및 시뮬레이션, 컨설팅 실천 워크숍 등 총 30시간의 교육을 통해 컨설턴트를 양성할 계획이다. 컨설턴트 양성과정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광주여성재단 엄미봉 대표이사는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입증 받고 있는 제도”라며 “광주여성재단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컨설턴트들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62-670-0532. /이보람 기자

슬픔 끝에서 발전하는 희망

광주시향 가족음악회 8일 ‘시와 클래식 만남’

슬픔을 주제로 한 시를 전문성우가 낭독하고 이어서 광주시향이 선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시음전(詩音展)이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시음전(詩音展) : 너의 슬픔에게’를 개최한다. 다양한 시각으로 슬픔을 마주하며 시와 음악이 함께하는 시음전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향 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하며, 드뷔시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에릭 사티의 ‘집노페디 1번, 3번’을 시작으로 문학을 사랑한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극작가 입센의 희곡 작품에 부

수음악을 작곡한 그리그의 페르균티 모음곡 중 ‘오제의 죽음’,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낭만적인 교향곡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 등이 연주된다. 연주와 함께 △오리아 마운틴 드리머의 ‘초대’ △이상국의 ‘해화역 4번 출구’ △신철규의 ‘슬픔의 자전’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안현미의 ‘내 슬픔에게 접 붙인다’ 등 총 다섯 편의 시를 낭독한다. 시 속의 주인공들은 저마다 애잔한 슬픔이 있다. 그 슬픔 끝에서 발견하는 것은 슬픔의 편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애정의 눈길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



성우 권인지

는 삶의 힘을 엿볼 수 있다. 낭독자로 나서는 권인지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우로 ‘2017 백상예술대상’,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을 비롯해 다수 CF 등을 녹음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이연수 기자



베스트셀러 1위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상반기 교보문고 분석...자기표현 위한 대화화술 분야 관심

올해 상반기 최고 베스트셀러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었다. 4일 교보문고가 공개한 2018년 상반기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 자료에서 수위를 차지한 ‘무례한 사람에게...’는 ‘대학내일’의 디지털 미디어 편집장인 정문정 씨가 일상 속 무례한 사람들에게 화내거나 관계를 끊지 않고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법을 소개하는 책이다. ‘미투’, ‘갑질’ 등 갖가지 사회적 이슈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 자기 생각과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화·화술 분야 도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위는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차지했다. 일상의 성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을 고발한 ‘82년생 김지영’은 페미니즘 열풍이 가열되면서 지난해 연간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반기에도 자리를 지켰다. 소셜미디어 인기작가 하태완의 에세이 ‘모든 순

간이 너였다’가 3위를, 만화 ‘곰돌이 푸’의 대사에서 뽑은 삶의 교훈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곰돌이 푸, 행복은 매일 있어’가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이기주 작가의 에세이 ‘언어의 온도’는 5위로 내려섰다. 6위는 미국 파워블로거 마크 맨슨의 자기계발서 ‘신경끄기의 기술’이, 7위는 현대인을 위한 조언과 위로가 담긴 김수현 작가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가 차지했다. 종합 베스트셀러 100위권에는 소설 21종, 에세이 19종, 인문 16종, 자기계발 13종, 경제경영 7종이 포함됐다. 책과 멀어지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책을 즐기는 사람의 독서시간은 늘어나는 독서인구의 양극화 현상도 관찰됐다. 성별·연령별 도서 판매량을 보면 여성 독자가 60.8%로 막강한 구매력을 나타냈으며, 특히 40대 여성이 전체 구매량의 19.6%를 차지해 출판시장 큰손으로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